

#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제7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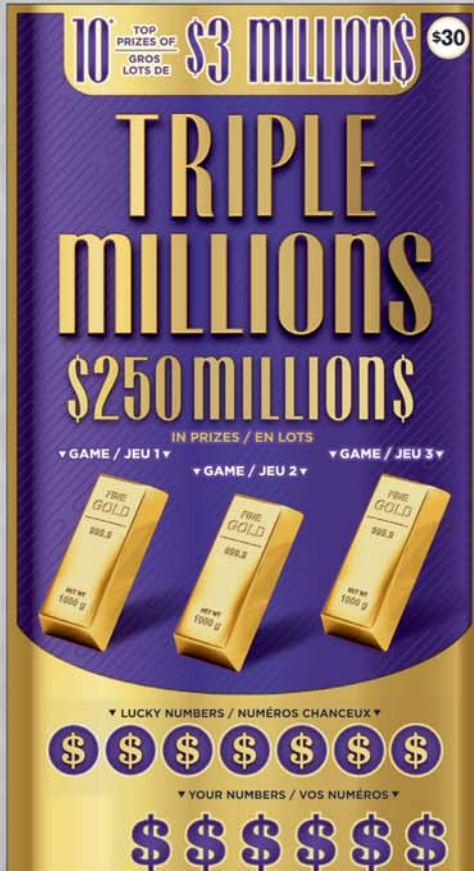


지난 11월 9일자로 캐나다는 담뱃갑 포장 통일화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제조사들은 더 이상 기존 담배를 제조하지 못하며 다만 소매업소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의 담배만 취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4-8면)



[www.okba.net](http://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새로운 \$30 TRIPLE MILLIONS 복권 출시에 대비하십시오!



2019년 11월 25일  
출시

1등 상금 \$3백만

당첨 확률 3.57 대 1

당첨금 지급률 70%

반드시 출시일 당일에 활성화하고  
복권진열대(silent sellers)에 진열하십시오!

팩 활성화 시점으로부터 40일 간의  
연장된 당첨금 지급 기간

## OLG 미스터리 쇼핑

OLG는 인증 절차 및 ID25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매업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합니다. 미스터리 쇼핑객은 미스터리 쇼핑을 한 후 점수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쇼핑객은 매장 직원과 함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매장이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만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ID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를 따르십시오.

미스터리 쇼핑객이 수집하는 정보는 OLG가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사항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유용합니다:

- 소매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상황의 식별
- 소매업자 지원을 위한 소매업자와의 소통 조정
- 이러한 소통의 효과 평가

미스터리 쇼핑객을 정중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들은 OLG가 의뢰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며, 이들이 알아낸 것은 저희가 교육 및 규정 준수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이효영 (519)442-4143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 K.B.A. 운영이사 : 김대영 (Dae-Young Kim)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 백사열 (Sah-Yeal Paik)  
(가나다 순) 장해민 (Hae Min Jang)



www.okba.net  
www.okbacanada.com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C O N T E N T S

04 - 08 / 평범한 담뱃값 정책 11월 9일부터 시행  
킹스턴 지구협회 2019 송년의 밤

09 / 조합 주주총회 공고

10 / 신영하 이사, 본협 제 40대 이사장

11 / LCBO 간이판매소 후보지 3차 발표

12 - 13 / 총선 후 탄소세 둘러싼 기 싸움 여전  
일회용 플라스틱 2021 전면 금지

14 - 15 / AACS, 불법담배 대처 정부 태도 강력 질타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16 - 18 / 계절을 달리는 '알랭 루아예'씨 이야기  
듀람 지구협 2019 송년의 밤  
노스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송년 파티 및 회장 선거)  
토론토웨스트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스카보로 지구협회 2019 송년회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12월 스페셜

# 평범한 담뱃갑 정책

## 11월 9일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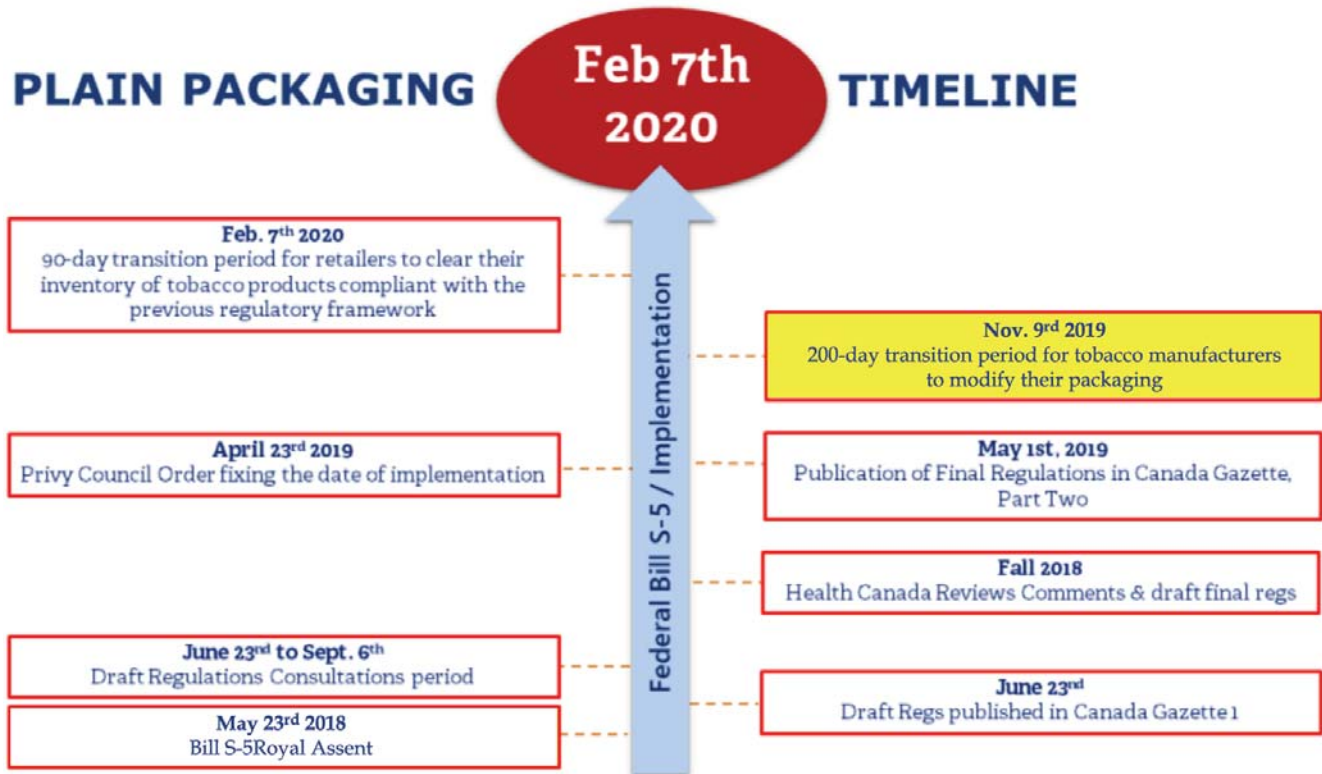


소매업계는 3개월 유예, 내년 2월부터 적용

### PLAIN PACKAGING

Feb 7th  
2020

### TIMELINE



▲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일정별 추진 경위 (제조 공급사는 11월 9일부터 현행 담배 생산 중단에 들어갔으며 90일 유예를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소매상에서도 오직 plain packaging 담배만 취급해야 한다.)

지난 11월 9일자로 제품 로고와 다양한 디자인이 인쇄된 기존의 담배 모습은 캐나다에서 사라지게 됐다. 담배 제조사들이 이날을 시작으로 기존의 담배 생산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수년동안 되풀이 언급해왔던 “포장이 통일화된” 담배 - 일명 plain packaging 정책이 제조사부터 일차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결정이므로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앞으로 편의점에 담배사러 가면 기존의 담배와 평범한 담배가 섞여서 진열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메이저 담배회사의 포장 통일화된 담배가 11월 첫주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공급사는 11월 9일을 기점으로 더이상 기존 담배를 생산하지 못하고 "평범한 담배"를 소매업계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소매업계는 기존 담배 재고량이 있

BROKERTeam  
INSURANCE

박효진 (Roland Park)

Cell (416)985-5287



- 집, 자동차 단체보험
- 상업용 건물, 가게 단체보험
- Beer & Wine 가게 맞춤형
- 프로그램스토어 특별할인보험

Main (905)770-8828  
Fax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업인협회 단체보험

기 때문에 이를 소진할 때까지 당분간 취급해야 하고 추가로 공급받는 담배는 법적으로 평범한 담배(plain packaged cigarette)뿐이므로 두 종류가 혼재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7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매업소에서도 오직 평범한 담배갑의 담배만 취급해야 한다.)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일반 담배들은 동일한 색상인 갈색(brown)을 바탕색으로 깔고 브랜드명은 회색으로 규격도 아주 작게 처리돼 있다. 이를 두고 담배갑 포장 통일화, 혹은 담배갑 포장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모든 종류의 담배갑이 크기, 모양을 동일하게 하고 안에 들어 있는 날개 담배 또한 그러하다. 시가 제품도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 전문가들과 이 정책 지지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높은 담배 통제 정책으로 흡연 욕구를 억제하는데, 특히 청소년 담배 유희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전국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 록 커닝햄 수석 정책분석가는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평범한 담배갑 정책이 "세계 최고"라고 한껏 추켜세웠는데 이는 그가 다른 나라 13개국의 사례를 연구 비교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커닝햄 박사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최장형(extra-long)-보통 원헌드레드(100)시리즈로 불림-담배와 슬림형 담배를 없앤 점에서 캐나다 제도가 최고"라고 강조했다. 담배갑 자체의 스타일도 오는 2021년이 되면 '탄창형'(slide-and-shell)으로 의무화된다. 현재는 상하 뚜껑개폐형이 대부분이지만 이때가 되면 뚜껑개폐형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담배갑이 탄창형으로 통일된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옆으로 밀었을 때 담배갑 표면이 최대화되고 이 넓어진 공간을 이용해 건강 경고문구나 그래픽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방면에 연구가 꽤나 깊어 보이는 커닝햄 박사는 "이번 조치가 시간이 더 지나면 보다 중요한 차이점을 보일 것인데 미성년자가 더이상 지금같은 화려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박힌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터루 대학 심리학과 조프리 풍(Geoffrey Fong)교수는 담배 제품 광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담배 회사들은 대신 포장술에 더 많은 공을 들여 호소력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광고는 통제를 받아 소비자들 눈에 띄지 못하게 되니(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담배 광고가 불법) 제조사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담배갑 디자인을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도 소비자 어필 정도가 큰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됐다. 한눈에 봐도 저마다 특색있는 디자인과 로고를 동원해 시각적으로 눈부시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특히 호기심 많은 사춘기 학생들한테 더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광고는 통제를 받아 소비자들 눈에 띄지 못하게 되니(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담배 광고가 불법) 제조사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담배갑 디자인을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도 소비자 어필 정도가 큰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됐다. 한눈에 봐도 저마다 특색있는 디자인과 로고를 동원해 시각적으로 눈부시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특히 호기심 많은 사춘기 학생들한테 더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선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 1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 ATM and POS system**

www.1solutions.ca / info@1solutions.ca Toll Free.1(888)554-7355 Korean(ext4) Direct Line.(905) 560-4511. (416)900-7533 Fax.1(888)554-0409



▲ 담뱃갑 포장이 미치는 소비자 심리에 관한 1인자라 할 제프리 폰 교수.

폰 교수는 국제 담배통제정책평가 프로젝트(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창안자이자 수석조사관이기도 하다.

교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점은 담뱃갑포장 통일화 정책에 담배에 대한 애착이나 매력을 감소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폰 교수의 조사 결과를 대략 요약해보면 이렇다. 『담뱃갑 포장술에서 핵심은 특정 브랜드가 다른 것들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울 것 같다는 인상을 받도록 소비자 심리를 기만하도록 디자인돼 있다. 예를 들어 얇은 색상의 바탕이나 흰색 여백은 짙은 색상이나 톤의 제품에 비해 건강의 위험이 덜할 것이라는 하등 근거없지만 묘한 정서를 유발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바로 이런 기만적 착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릴 수 있다. 시각적 유혹을 제거함으로써 건강 경고문이나 그래픽쪽으로 더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다.』


평범한 담뱃갑에 대한 여론 조사까지 직접 해본 교수는 국내 흡연자 28%만이 이번 새로 변경되는 담뱃갑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정부가 구사해온 그 어떤 담배 통제책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교수는 이런 여론 결과를 가지고 여론이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다소 독특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흡연자로부터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여겨지겠지만 더 길게 볼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장담해서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교수는 흡연자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져가면 지지폭이 커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까지 하고 있다. 상식에 반하는 독특한 해석이다. 아마도 학습효과, 환경결정론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

교수의 입장을 강화하기라도 하듯, 담배 제조사들은 학습의 결과로 일어나는 소비자 행동변화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즉 소비자가 새로운 포장 외관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네임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벨몬트 살머는 벨몬트 셀렉트(Belmont Select)라는 새 브랜드명으로 바뀌는데 이는 브랜드면에서 해당 제품의 색상이나 필터 등 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법규를 따르는 결과다. RBH의 대외홍보 담당 제프 굴랑 이사는 이미 회사가 한달 전부터 소매업주들이 새로 쏟아져 나올 변경 브랜드에 익숙해지기 위해 사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야 주문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중요했던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도 새로 업데이트해서 온라인 상에서도 업주들이 새 정보에 쉽게 다가가고 정보를 얻도록 조치를 했다고 한다. 따라서 평범한 담뱃갑 정책에 업주나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면 지금의 앞서가는 다양한 우려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꽤나 낙관적 입장이다. 굴랑 이사는 “모든 상황이 아주 원만하게 진행 될 것”이라면서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주문량과 배달량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BH가 평범한 담뱃갑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내 최대 담배제조사 임페리얼의 법무총책 이사인 에릭 가농 씨는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몇가지 점에서 여전히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들어보자. “제조 전체 설비를 바꾸는 중이다. 이게 자물쇠 바뀌며 열쇠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모든 공정 자체가 바뀌어야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형법</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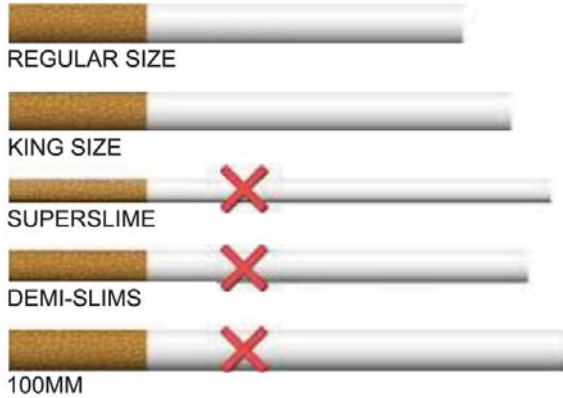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 담배 개비 필터에도 변화가 온다.



▲ 담배 길이도 수퍼슬림, 준슬림, 100밀리는 퇴출된다.



▲ 담배갑 형태는 현재의 뚜껑개폐형(왼쪽)에서 유예기간을 두며 오른쪽과 같이 탄창형으로 변경된다.

하고 장비, 설비 몽땅 교체다. 이는 명백히 대단하고 복잡한 공장설비 전체 교체로 인한 막대한 비용 희생을 수반한다.” 가농 이사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기업의 막대한 비용 희생을 딛고서도 이 정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불법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이 이슈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이해당사자들 역시 가농 이사가 비판하는 지점과 유사한 근거에서의 비판을 제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그렇다. WHO는 “평범한 담배갑 정책은 근거가 취약하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의구심을 제기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하는 기관이다.

가봉 이사는 임페리얼이 이 정책에 반대해 소송전을 벌일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지만 전국암협회측은 여러 보건 단체들이 지난 1994년부터 이 정책을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임페리얼측이 계속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을 상기시켰다.

앞에 소개한 암협회 수석분석가 커닝햄 박사는 지난 25년간 국내에서는 이번 정책 관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힘을 받고 추진력을 키워왔는데 이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 효과들이 입증된 것도 큰 몫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그 효과를 우리 캐나다도 입증할 차례”라고 말했다.

“여러 나라들이 담배 산업계로부터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싹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캐나다 정책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대도 그만큼 더 강하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박사의 한껏 고무된 확신에 찬 말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 됐다. 협회 회원들은 담배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자료와 정보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차질없이 과도기를 보내고 내년 2월 7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

## 새 담뱃갑 바탕색, 왜 하필 갈색? (Why brown?)

심오한 의미 있었네...

PANTONE  
448 C

▲ 세상에서 가장 밍갸없는 색상인 팬톤 448 C  
(World's "ugliest" Pantone colour 448C)

담뱃갑 포장 통일화 정책에서 디자인과 관련해 핵심 포인트의 하나가 담뱃갑 표면 바탕색이 칙칙한 암갈색(drab dark brown)이라는 점이다. 많고 많은 색상 중 왜 하필이면 이 색상일까?

물론 시각적으로 일별해도 정말 생기라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무매력 색상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 색상을 선택한 배경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진다. 그런데 맞다. 다 의미가 있었다. 이 색상은 전문 용어로 ‘팬톤 448C’(Pantone 448C) 컬러라고 부른다. 담배 제품에 있어 ‘평범한 담뱃갑’ 정책을 도입 시행하는 모든 나라가 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전례의 하나가 바로 호주다. 호주는 지난 2012년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도화선을 만들었다. 그때도 소비자 여론 조사를 했다. 캐나다도 역시 보건부에서 2016과 2017년에 걸쳐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호주와 동일하게 팬톤 448 C 컬러가 가장 ‘꼴보기 싫은’ 색상으로 밝혀졌다. (Source: Health Canada, 2018). ■

## 킹스톤 지구협회 2019 송년의 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로 한 해를 잘 보낼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킹스톤 한인실업인 협회는 2019 송년의 밤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주셔서 송년의 밤을 빛내주시고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후 5시 30시작
- 장소 : Knight of Columbus Hall Trenton  
57 Stella Crescent, Trenton, On K8V 1W6  
Tel. 613-392-2310

### \* 참고사항

- 참석여부를 11월 25 일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613-403-0142 또는 jkone1026@hotmail.com
- 식사 후 푸짐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경품이나 후원금 지원을 적극 환영하오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킹스톤 지구협회장 이강정

## (주) 하이쿨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끝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전문적인 기술자가 동체 기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클러/후리지, 덕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 조합 주주총회 공고

본 KBA 협동조합은 정관 제 4장 제 13조에 의거 제 37차 연도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 오후 1시
- **장소** : KBA협동조합 부속 회의실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 : 416-789-7544)
- **주요 안건** : 1) 예.결산 보고 및 승인  
2) 감사보고  
3) 운영이사(4인), 감사(2인) 선출  
4) 정관개정  
5) 기타
- **유의 사항** : 1. 회의 참석 시 필히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  
2.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최소 1회 이상 상품 구입한 실적과 보통 주 1주 이상 보유자에게만 해당됨 (조합 정관에 의거)
- **기타 사항** : 1. 기존 100불 보통주 보유 조합원은 금번 주총에 참가해 100불 주식 증서를 제시하면 100불을 현금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10%가산한 110불의 조합 쿠폰 선택도 가능함.  
2. 부득이 총회 불참의 경우,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회의 참가로 간주하고 상기 1항의 100불 보통주 환급을 조치함.  
(출석위임장은 실험웹사이트 [www.okba.net](http://www.okba.net)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조합에 문의해 입수 가능. 전화 416-789-7544. 팩스 416-789-5013)
- 3. 운영이사, 감사 후보 신청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조합 사무실에서 수령 후, 본인이 직접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후보 등록 완료해야함.



## 2019년 12월 프로그램

### 시민권 신청

- ☐ 일시: 12월 9일 (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캐나다 정부의 정책 방향  
2. 캐나다 시민의 의미  
3. 시민권 개정안 안내  
4.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5. 시민권 시험 및 시민권 신청서 개요

### 캐나다 국세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활동

- ☐ 일시: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 담당: 가정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세금보고 자원봉사 활동이란(CVITP)?  
2. CVITP 자원봉사자의 역할  
3. CVITP 자원봉사자의 요건  
4. CVITP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5. E-file 신청 안내

### 웰컴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 일시: 12월 12일, 19일 (목) / 총 2회기  
오후 6시 - 오후 8시
-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2. 내가 사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 부모 초청

- ☐ 일시: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 서류

- KCWA 노스욕센터: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KCWA 배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 North York

2019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맛있는 음식,  
즐거움 음악과 공연, 축하하는 이벤트에 가족, 연인,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소소한 마스코트 이벤트를 영감하는  
이벤트 가발을 즐겨 위한 서비스 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KCWA와 함께 하는  
**Community Fun Night!**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9시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참여방법: 시민권 시험(2020. 8.30. 500불)  
구입 후 행사 당일 참여가능.

타겟번호: 416-340-1234 / www.kcwa.net

캐나다한인여성회

**우리들의 발자취**  
Empower Us Project  
Empowering Senior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Storytelling

한인 이민 1세대 본분은 어떤  
**이유로** 캐나다에 오게 되신 걸까요?  
FHO - HAOUB  
점락 당시에는 어떤 **삼들** 살아갔을까요?

영상 촬영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월 7일 (토) 1시-3시  
540 Finch Avenue West

당첨권 및 캐나디안연세연금 후원이(2018년) 영연세연금  
기금이며 커뮤니티에서 요청하실 경우 발령하여  
프로젝트의 소개 및 영상 촬영을 도와드립니다.



11/12 정기이사회에서 압도적 다수 인준 획득

## 신영하 이사, 본협 제 40대 이사장



▲ 새로 선출된 신영하 본부협회 이사장(왼쪽)과 이두승 이사장이 의사봉을 교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본부협회 신영하 부이사장이 제 40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2019/2020 회계 연도 첫 정기 이사회에서 신 이사는 재적 이사 31명 중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단독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 찬반을 묻은 결과, 압도적인 21명의 찬성을 얻었다. (반대 2명)과 추천자가 2명이 더 있었으나 모두 고사한 결과 단독후보가 된 것이었다.

신영하 부이사장은 이민 역사 50여년이 된 캐나다 1세대 이민자라 할 수 있으며 협회와 조합에 오랜 세월 많은 봉사를 해왔다. 본부 협회와 지구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했고 2017년에는 현 신재균 회장이 당선되던 정.부 회장 선거를 총 지휘하며 협회 역사상 최초로 시행했던 우편투표 병행 선거를 맡으며 치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후 협회 부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 운영이사장을 맡았고 최근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 직책도 아우르고 있었다.

이날 회의는 관례대로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이두승 이사장이 진행을 맡고 이후부터는 새 이사장이 맡았다. 신 이사장은 협회와 조합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말하며 미리 마음에 담아뒀던 김대용 이사(리치몬드힐 지구협회장)를 부이사장으로 지명해 박수로 인준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는 2년 임기의 7명의 선거관리위원도 선출했다. 추천형식으로 7명을 받아 박수로 인준했는데 7인 선관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 〈선거관리위원〉

김경선, 배종민, 이현식, 조용상, 최상겸, 최영찬, 허창훈

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는 유일한 안건이 새 이사장 선임이라 짧은 시간에 종료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날 기타 토의 시간에는 집행부를 향한 이사들의 평소 궁금한 사항들이 쏟아져 나와 신재균 회장의 답변이 길어지며 의외로 회의가 활기찼다. 신 회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에도 협회와 조합의 현황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보태기도 했는데 이하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비영리기관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협회의 수익구조 운영에 형식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방록 회계사의 조언에 따른 바 협회 수익의 가장 큰 몫을 구성하는 리베이트 조차도 비영리기관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조합이 창출하는 수익으로 외형적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협회에서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한다. 또한, 웨스트몰 건물 주인으로서의 협회가 상당한 정도의 렌트비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 또한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위상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조합이 서브 리스를 주는 형태로 전환을 검토한다.

●지구협회 지원은 협회 이벤트나 회의 등 협회의 활동에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정확히 반영될 것이다. 참여도가 미약한데 다른 지구 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향후 참여도에 따른 공정한 지원책을 구사한다.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협회 회장과 조합 운영이사장은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것이 옳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협회와 조합이 모두 전무 부채 상태로 오래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전혀 근거없지는 않다. 따라서 적절한 때를 봐서 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나 해당 인력은 전무가 아니라 실무에 큰 역할을 발휘할 젊은 세대가 될 것이며 협회와 조합 업무를 겸임하게 될 것이다.

이상 신재균 회장이 인사말과 기타토의에서 밝힌 입장과 현황의 개요다. 회의 종료 후 각 지구협별로 참석자에 한해 지구협 지원비와 임페리얼 여성의밤 입장료 지원비가 제공됐다. ■

이전 미신청지 포함 273곳, 순수 추가는 42곳

## LCBO 간이판매소 후보지 3차 발표



▲ 심코호수 서편에 위치한 에버렛이라는 인구 1700명의 작은 마을 메인스트리트 선상의 이반 컨비니언스 (Ivan Convenience)에 허가가 난 LCBO. 지난 6월 1차 발표 시 서류 신청해 허가받고 내부 설비 갖춘 후 10월 초에 영업에 들어갔다.

온주 정부가 최근 LCBO아웃렛(LCO ; LCBO Convenience Outlet) 3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재무부(산하 LCBO)가 LCBO 아웃렛, 즉 LCBO간이판매소 후보지 200곳, 그리고 지난 9월 10일 302곳을 발표 한데 이어 이번 3차 발표는 273곳의 후보지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매년 발표 때마다 모두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며 1차에서 후보 업소가 나가지 않으면 이를 2차 발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고 이번 3차 발표도 그런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추가된 후보지는 42곳으로 확인됐다. OCSA가 이를 면밀하게 대조해서 추려낸 결과다.

신청조건이나 절차 등은 지나 1차, 2차 발표 때와 동일하며 다만 스케줄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소개한다. 워낙 짧은 기간 예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여유시간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 차원이다. 이번에도 온주 동북부나 남서부 지역이며 GTA는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모든 편의점에 주류판매 허가를 해주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검토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후보지 발표가 있었고 본인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앞서 발표되고 있는 외곽쪽 후보지에 해당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령이나 요건등을 향후 대비해 관심있게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추진 일정〉

질의 기한	11월 8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 11월 20일(수) 2 : 00 p.m (동부시간 EST기준) ●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 lcbosubmissions@lcbo.com
현장 실사	12월 중
허가 발부	2020년 1월부터

### 〈주의사항〉

● 신청자 문의 폭주로 전화 응답이 불가능할 수 있다.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 이메일을 통한다.

● 제출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서류 제출 마감 시한 전까지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달았음에도 실제로 전화번호는 남겨놓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LCBO의 대표전화는 1-800-668-5226, 416-365-5900. 이메일 문의는 신청 접수 이메일과 동일)

● 작성요령을 비롯한 관련 상세 자료는 LCBO웹사이트 [www.lcbo.com](http://www.lcbo.com) → 초기화면 하단 SITE doing business with LCBO → Store Construction, Real Estate, LCBO Convenience Outlets → Apply for an LCBO Convenience Outlet Authorization로 클릭해서 들어간다. 여기서 Appendix A를 클릭하면 후보지 273곳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작성 요령의 한국어 버전은 9월 2차 발표와 동일하므로 협회 사이트 [www.okba.net](http://www.okba.net)에서 공지 사항에 들어가 488번이나 471번을 참고한다. (471번은 6월 1차 발표 때의 번역 소개 기사임) ■

## 포드 정부 vs 연방 & 주 야당들

# 총선 후 탄소세 둘러싼 기 싸움 여전



▲ 연방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온주 포드 정부는 연방 탄소세 반대 캠페인과 소송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총선 전 그레그 릭포드 온주 에너지 장관이 탄소세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온타리오주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반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에너지 장관이 주유소 주입기에 부착하는 탄소세반대 스티커를 놓고 '투명성의 문제'라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레그 릭포드 온주 에너지 장관은 문제의 스티커는 주민들에게 탄소세가 일자리 죽이기(job-killing) 조치임을 알리는 중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정부의 총대를 매고 나선 것이다. 탄소세를 내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이 스티커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유소 주인들이 주유기에 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온주 정부의 조치는 이미 지난 8월 말에 시작됐다. 연방 총선이 있기 몇 주 전의 일이었다. 릭포드 장관은 선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스티커 캠페인이 더 요긴하다고 말했다. "스티커 캠페인은 계속 될 것이다. 온주 소비자들은 비용 압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투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주유소 주인들이 주저없이 그래프로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스티커를 기꺼이 부착하고 있다."

온주 보수당 정부는 작년 여름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연방 탄소세에 반대하는 법적 싸움과 주민 계몽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주유기에 문제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업주에게 150달러 벌금을 물리겠다

는 시행령도 발표했다. 릭포드 장관은 "아직 이 규정에 의거해 벌금을 부과받은 주유소는 없으며 검사관들이 경고 정도를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티커는 야당 지도자들과 온주 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표현을 강요받고 있는 처사"로 비판받았으며 이들은 정부가 스티커 캠페인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디그포드 수상은 지난 8월에 유권자들이 10월 21일 연방 총선에서 탄소세 정책에 대한 운명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었다. 하지만 선거는 자유당의 승리로 끝났고 연방 보수당과 온주 보수당은 법정 싸움을 계속 할 의사를 밝혔다. 릭포드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연장선에서 총대를 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온주 정부는 연방과의 탄소세 반대 싸움을 위해 3000만 달러를 예산 책정해놓고 있다. 이에는 소송비용과 이번 스티커 캠페인같은 대주민 홍보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비용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계획 하의 비용을 산정했다.

연방 보건부(캐서린 맥케나 장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국민은 재정감당능력과 오염 감소 등의 이슈를 놓고 정부 지도자들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국민들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과 삶

의 물질적 여유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온주 제 1 야당인 신민당(NDP) 안드레아 호와쓰 당수는 보수당 정부가 스티커 캠페인과 법정 싸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와쓰 당수는 “현재 집권 여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돈 낭비, 시간 낭비, 모든 자원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포드 수상은 기후 변화를 다루어야 할 여하한 노력에 역행하는 싸움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15년을 온타리오 집권 여당으로 행세하다가 작년 총선에서 존재감조차 지워질 정도로 쇠락한 자유당 대표 권한대행 존 프레이저는 포드 수상이 유권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유권자들은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이번 총선 결과를 해석했다. “수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플랜을 없애버렸고 현재 또다른 계획을 없애고자 하는데 결국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무계획일 뿐이며 온주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레이저 권한대행의 매서운 질타였다. 참고로 자유당은 지난 15년간 늘 원내 다수당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총선에서 124석 중 7석으로 처참하게 쪼그라 들었고 현재는 그나마 5석으로 줄어 있다. 온주 자유당 162년 역사에서 원내 교섭단체도 안되는 신세는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한편, 또 다른 야당인 녹색당 대표 마이크 쉬라이너씨도 정부 여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쉬라이너 대표는 “포드 정부는 전혀 이길 승산도 없는 소



▲ 온주 보수당 정부의 연방 탄소세 반대 정책 때리기에 합세하고 있는 연방 정부와 온주 야당 대표들(왼쪽 부터 연방 환경부 케서린 맥케나 장관, 온주 제 1 야당인 신민당 안드레아 호와쓰 대표, 온주 녹색당 마이크 쉬라이너 대표)

송을 책략적으로 벌일 따름인데 당장 취하해야 마땅하다.”면서 스티커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스티커를 보면 당장 현재의 유가에 연방 탄소세가 리터 당 4.4센트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오는 2022년이 되면 11센트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몫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탄소세는 평균 가구 당 금년에 258달러를 부담시키고 2022년에는 648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모든 주의 주민들은 그들의 소득세 보고 시 리베이트로 연간 128달러를 돌려받도록 조치가 될 것이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연방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온주 정부의 탄소세 반대 정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

## 물병, 비닐백, 빨대 최우선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2021 전면 금지



재집권에 성공한 연방 자유당 정부가 2022년 초에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같은 발표는 지난 6월에 나온 것이지만 재집권으로 흔들림이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확정지를 예정이나 대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금지대상으로는 플라스틱 생수 용기와 일회용 비닐백 그리고 일회용 빨대가 무조건 해당된다. 금지 품목은 유럽연합(EU)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6월에 퀘벡에서 개최됐던 G7정상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현장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리고 EU가 현장에 즉각 서명했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방안 강구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에 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연방의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정책은 이같은 글로벌 합의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 국민은 대체로 지지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56%의 국민은 일회용 플라스틱 모든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찬성했으며 25%는 적절한 선에서 지지를 보였다. (모든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에 대해 80% 이상이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71%는 플라스틱 대신 돈을 더 비싸게 물더라도 환경 친화적 대체품을 쓸 용의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업계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소매업소와 제조사들은 이미 플라스틱 물병과 일회용 백의 소비 감소를 위해 선도하는 입장임을 내세우며 한발 앞서가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하루 평균 소비되는 일회용 비닐백은 3,400만 장이 넘는데 일회용 백 하나가 완전히 썩는 데는 1000년이 걸린다. ■

“평범한 담뱃갑 정책, 불법담배 확산 결정타”

## AACS, 불법담배 대처 정부 태도 강력 질타



2018년에 밀반입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압류당한 밀수담배의 엄청난 물량. 호주는 작년에 담배 한갑에 평균 28달러였다가 12.5%의 담뱃세 인상으로 31달러가 됐다. 카튼이 아니라 한 갑의 가격이 이 정도이며 세계 최고의 가격이다. 2022년까지 호주 정부는 한 갑 당 40달러로 높일 것이라는데... 이에 대해 호주 편의점 업체는 지나친 세금으로 인한 터무니없이 비싼 담배가격에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등으로 대규모 담배밀수가 판을 쳐도 차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Queensland Police

호주편의점협회(AACS)가 보건부에서 약속한 전국 차원의 흡연에 관한 대국민 교육 계몽 캠페인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법담배의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협회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최선책은 대국민 계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아울러 세금이나 올리고 평범한 담뱃갑 정책(plain packaging) 등에 의존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대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 지하 시장을 키울 뿐이라는 판단때문이다. AACS 제프 로켓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자금이 넉넉한 보건 단체들의 술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그저 담뱃세 올리는 것에만 집중해있는 정부의 흡연감소정책에 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트렌드에서 볼 때 별다른 변화나 이탈을 보이지 않으며 다만 담배 구입처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회장이 언급하는 담배 구입처란 불법담배의 조달을 의미한다. 회장은 “호주는 지구상에서 불법 밀수 담배가 가장 수지맞는 장사가 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가장 최근까지도 해외에서 밀반입되다가 적발 압수된 실상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 항공 편으로 밀반입하려던 담배를 최근 압수 했는데 100만 개비가 넘는 1톤 무게의 물량으로 세금 포탈액이 무려 11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회장은 이 한가지 사실을 사례로 들며 국경수비대가 기만하게 대처해 밀수범들을 체포했지만 겨우 빙산의 일각만 잡을 뿐 나머지는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망을 빠져나간 밀수담배들은 호주 전국 동네마다 마구 유포되고 있어 심각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길거리에서 거리낌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일망타진한다는 정부의 노력은 잠시 요란떨다가 호지부지되기 일쑤다.”

회장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주국경수비대 웹사이트 (www.abf.gov.au)를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담배반입과 밀수 등에 대해 ‘prohibited goods’라는 타이틀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담배로 인한 피해는 두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비자가 그 첫째 대상이고 정직하게 정품 담배를 취급하고 있는 소매업주가 그 두번째 대상이다. 전자는 성분도 모르고 품질 기준도 없는 불확실한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후자는 정품 매출의 큰 몫을 범법 지하경제에 잃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호주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법담배 시장을 가진 나라다. 업계는 이렇게 된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를 비롯한 잘못된 법과 제도라는 환경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plain packaging)이 도입된 2012년부터 불법담배 확산은 더 심화됐다.

다국적 회계 재무 서비스 회사 KPMG에 따르면 호주의 전체 담배 시장에서 불법담배가 차지하는 몫은 무려 14%가 넘고 경제적 희생을 따지면 연간 20억 달러를 상회한다.(이는 정부 세금누수, 소매업소 담배 매출 감소와 불법담배 자체의 매출액 등이 합산된 금액)

아직도 백주에 길거리에서 불법담배가 손쉽게 거래되며 그것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된다. 이는 소매업주나 일반 소비자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다. 이 나라 전체 담배의 14% 이상이 불법담배라니... 조직 범죄단이 밀수해서 전국 도처에다 뿌려대는데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소매상인들 초차 결과야 어찌됐든 팔고보자는 식이다. 그런데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보건부 장관에게 불법담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대국민 교육 계몽 캠페인과 동시에 경찰권이 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호주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호주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담배 제품이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군이며 업소 평균 매출 점유율이 40% 수준이다.

로켓 회장의 다음말로 마무리한다. “성인흡연자는 정품 제품을 제대로 전달되는 정보에 따른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담뱃갑 포장통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완곡하게 표현함) 그리고 대국민 계몽을 통해 흡연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공연히 정직한 소매업주를 희생해서 지하경제 범죄율만 높이는 우를 범할 일이 아니다.” ■

##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필 지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 00 p.m
- **장소** : 만두향  
(169 Dundas St E, Mississauga)  
Tel. 905-897-3355
- **안건** : 회계 결산 보고 / 정.부회장 선거

\*필 지구협 송년 파티 겸 가지는 정기총회이며 정.부회장 선거도 함께 치르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 여부 및 정.부회장 선거 관련 문의는 416-505-0448 또는 905-813-1333으로 문의바랍니다.

필지구협회장 이수봉

[www.okbacanada.com](http://www.okbacanada.com)

##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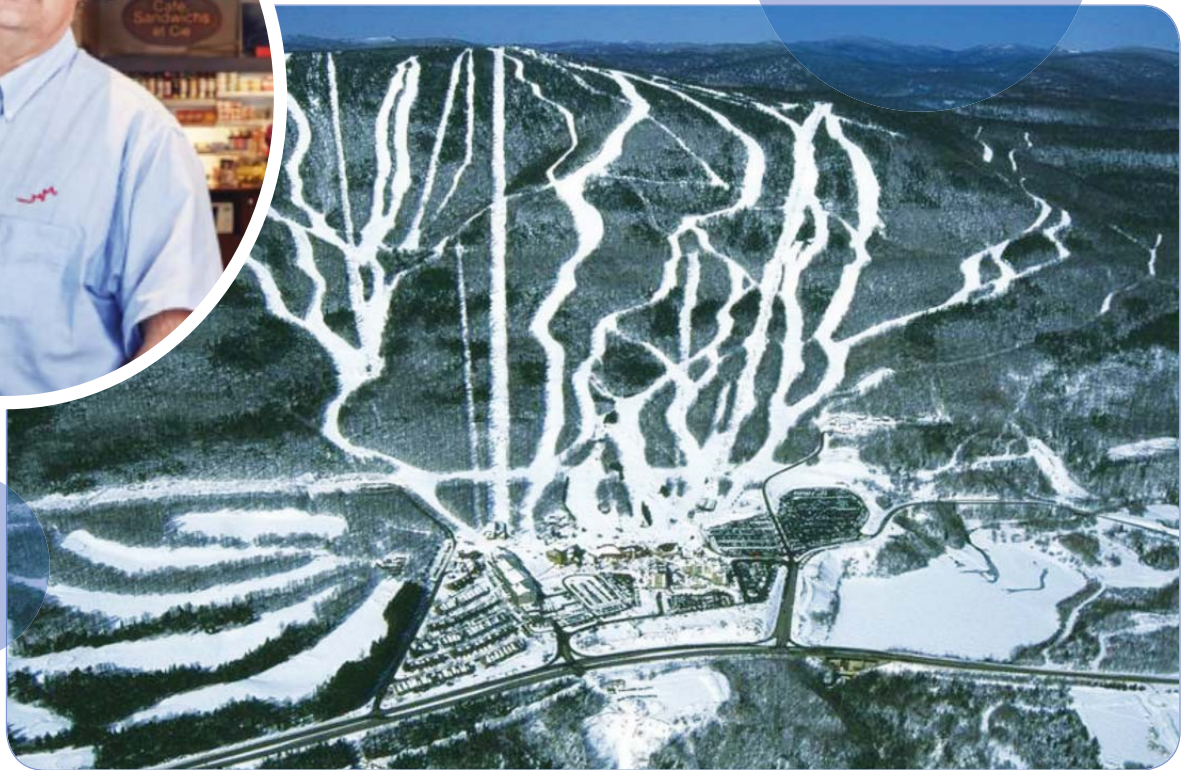
협회 웹사이트가 새 단장을 하며 주소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주소는 [www.okba.net](http://www.okba.net) 이며 앞으로 변경될 주소는 [www.okbacanada.com](http://www.okbacanada.com)이다. 사실 지금도 새 주소로 방문해도 기존 주소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두 사이트가 동시에 운영될 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소는 영원히 사라진다. ■



# 계절을 달리는 '알랭 루아예' 씨 이야기

몽생뉘느 스키광들의 단골 편의점



▲ 캐나다 유수의 스키 리조트 몽생뉘느에서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알랭 루아예씨의 영업 노하우는 적절한 투자에 기반한 인간미 넘치는 대인관계에 있다.

**퀘**벡시티 동북쪽 40킬로 지점에 부프레(Beaupre)라는 타운이 있다. 로렌시아 고원 중턱의 이 마을에 유명한 스키 리조트 단지가 있는데 몽생뉘느(Mont-Sainte-Anne) 스키 리조트로 불리운다. 그런데 이 유명한 스키 리조트 못지않게 이곳에서 유명한 편의점이 있어서 본 지면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계절을 타고 편의점 운영을 잘 하는 한 모범 업주의 노하우를 전하자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알랭 루아예(Alain Royer). 유명한 스키 단지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정작 이 자는 스키를 탈 줄 모른다. 몽생뉘느 중턱에 겨울 특수(特需)를 톡톡히 즐기는 3개의 데판노(편의점의 불어)를 운영하는 주인 루아예씨는 마치 고난도 스키 코스에서 지그재그를 기막히게 지치며 설원을

달리는 전문 스키어처럼 편의점의 마법사(wizard of convenience stores)로 불릴 만하다.

치명적 문제는 겨울 스키 시즌이 아니면 가게 매상이 푹 떨어진다. “여기에 스키용품 숭들이 있고 그밖에 시즌 한정 운영되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다. 그러나 눈이 없는 계절이 큰 문제다” 그야말로 계절 반짝 장사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편의점이 어떻게 1년 수지를 맞추는가 궁금해진다.

“관광객들이 전체 업소 수입의 2/3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75%가 스키 시즌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4개월에 이루어진다.”



루아예씨와 또 한명의 동업자인 데니스 하멜린씨가 이곳에서 첫 편의점을 구입한 때가 지난 1992년이였다.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며 장사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이라기 보다는 당시 구입했을 때 잡화상 분위기였다고. 우체국과 푸주간도 겸했으니...

두사람은 꽤 큰 돈을 들여 업소를 통째로 뒤집었다.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한 것이다. 냉장, 냉동설비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카운터도 새로 만들었다. 벽면에도 돈을 좀 들였는데 스키 관련 예술 작품과 치장으로 시선을 확 잡아 끌게 했다. 스키 리조트 지역이니 컨셉은 딱 맞았다.

92년 당시의 편의점, 그것도 독립 편의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감하게 바코드 스캐너 시스템을 도입했다. 식품 취급하는 소매상으로는 퀵백 시티, 아니 퀵백 주 전체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고 한다. 그리고 1년 후인 93년에 이곳 스키단지 입구 근처의 4성급 호텔 사토 몽생판느 로비에 입점해 편의점을 열었다. 두번째 가게다. 루아예씨가 당시를 회고한다. “단순한 기념품 가게 이상이었다. 물론 몽생판느 리조트 로고 박힌 티셔츠, 겨울 모습 담긴 우편엽서 등도 팔지만 팝, 칩스, 초콜렛 등 주전부리도 고루 잘 갖췄다. 불과 몇년 지나고 매출이 단단한 기반을 다졌는데 연간 우편엽서가 무려 2만 장이나 팔렸다.”

그런데 최근 이 업소가 문제가 생겼다. 몇년 전부터 기념품 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이유는 주변 가게들과의 경쟁이 심해졌고 스마트폰 기능발달로 기념 사진이 풍부하게 검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이테크 놀로지가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를 겪는 셈이다.

그러나 그와 동업자 하멜린은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어떻게? 스키어 관광객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 커피와 주전부리를 제공하면서부터 기념품 부진을 이것으로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대박 성공은 1995년에 두사람이 세번째로 인수했던 페트로 캐나다 주유소에서 왔다. 작은 몰을 끼고 있는데 스키단지에서 서쪽으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동업자 하멜린이 지어서 오픈한 것이다.

루아예씨에 따르면 이 세번째 업소는 늘어나는 관광객과 기존 지역 주민들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업을 한 것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인기몰이한 아이템이 신선한 자구워내 음식들, 프랑스식 돼지고기 식품인 샤큐터리(charcuterie), 영화 비디오이고 이밖에도 특별한 식품들과 로컬 맥주, 야외 활동 관련 아이템들이 인기였다.

“대담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이다. 현재 3개 매장에 총 21명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종업원이 교대제로 일한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다. 365일 오픈하는데 크리스마스 날만 영업시간을 밤 8시로 단축할 뿐이다. 주유소쪽에는 사무실까지 꾸리고 사령탑 구실을 하는데 동료 하멜린은 나름 또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바로 옆에 레스토랑과 스키숍을 운영하고 있다. 스키 관광지역에서 점점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우모빌 타는 사람, 여름에는 골프나 하이킹 즐기는 사람들로 연중 사람들이 붐빈다.

몽생판느 리조트는 처음에만 그러했고 이제는 사시사철 관광지가 됐다. 루아예와 그 동료에게는 참으로 운이 좋은 셈이다. 거기다가 둘은 경험도 풍부하고 혁신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이운을 찾아내는 사

## 듀람 지구협 2019 송년의 밤

지난 한 해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로 한 해를 잘 보낼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올해 송년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 **일시** : 12월 5일 (목) 오후 12 : 30 - 3 : 00

● **장소** : Mandarin

1725 Kingston Rd., Pickering (905-619-1000)  
<https://mandarinrestaurant.com/pickering/>

\* **참고사항**

참석 여부를 11월 28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905-579-2500

듀람 지구협회장 이현식

## 노스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송년 파티 및 회장 선거

■ **정기총회 소집공고**

가. 일시 : 2019년 12월 19일 오후 13:30

나. 장소 : 더프린 서울관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416)782-4405

다. 안건 : 회장단/이사/감사 선출,

결산 및 예산 승인, 감사보고, 기타

■ **2020/2021회계연도 회장 선거 공고**

가. 입후보 등록 마감일 : 2019년 11월30일

나. 회장단 선출일 : 2019년 12월 19일 13:00

다. 장소 : 더프린 서울관

■ **송년파티**

가. 일시 : 2019년 12월 19일 14:30

나. 장소 : 더프린 서울관

다. 참석대상 : 정회원( 부부동반 참석 가능, 참석회원에  
 게 \$100상당의 선물 제공)

2019년 11월 14일

노스욕 지구협회장 방 성 덕  
 노스욕 선거관리위원장 이 구 업

업수완이다 이를 바탕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3개 업소는 불과 수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다.

12월에는 평소 재고량의 4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 위낙 한철 집중 장사라서 이 한달 재고 확보에 실패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하는 시즌이다. 결국 걱정 재고량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를 계산하느라고 골머리를 앓는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물량을 지니고 있으면 돈도 잠기고 자칫 계절이 바뀌고 비수기가 돼 폐기처분할 물건도 꽤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여러 해동안 시행착오도 겪었다. 물론 피해도 봤다. 이제 그런 실수의 반복을 통해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저러한 와인은 몇병정도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계산이 정밀해지고 있다.

이제 베테랑이다 된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생겼으니 다름아닌 종업원 확보 문제다. 첫째로 제대로 된 종업원을 구해서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과제는 훈련이다. 대표적으로 담배 손님으로 25세 미만으로 보이면 철저히 연령체크를 하도록 끊임없이 각성을 시켜야 한다.

루아예씨의 직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과 자부심은 다음 말에서 절실히 묻어난다.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담배합정 단속원이 미성년자 썬폴을 보내 담배를 사도록 하는 시험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둘은 비즈니스 현대화를 위해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업소를 탈바꿈시켰으며 이를 통해 고객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했다. 작은 편의점이라고는 하지만 기꺼이 투자를 해왔다.”

그의 다음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 “시대를 함께 가야 한다. 그

## 스카보로 지구협회

# 2019 송년회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9시**
- **장소 : 샤론가든**  
3601 Victoria Park Ave. (#119)  
Scarborough ON.  
Tel. 416-885-8886  
**\* 부부동반 환영**
- **연락처 : 416-759-4503**

---

스카보로 지구협회장 엄종호

렇지 못하면 편의점 비즈니스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끝으로 알랭 루아예씨가 사소하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세가지 꿀팁을 소개하며 글을 맺는다.

● **손님 이름을 불러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단골 손님은 이름을 불러줘야 하며 그 손님의 아내 또는 남편과 아이들 이름까지 꿰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 **종업원을 쿨하게 대하라.**

종업원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나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종업원일수록 실수가 잦을 것이다. 실수했다고 너무 호들갑스럽게 하지 말라. 과장하고 오버질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냥 평온한 분위기에서 자상하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역시 종업원 관련한 조언이다. 비판적이 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잘한 것을 보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 ■

##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

# 정기총회 / 송년회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 정기 총회와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 6:00 p.m / 송년 파티 7:00 pm
- **장소 : 더프린 서울관 (416-782-4405)**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 **총회 안건 : 2019년 감사보고**  
정.부회장 선거 및 이사 / 감사 선출

\*정기총회 관련 문의 : 416-975-0365, 647-882-5241

## 〈정.부회장 선거 공고〉

토론토웨스트 지구협회 정.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2019년 11월 28일까지 관심있는 후보자들은 등록하기 바랍니다. (문의 : 선관위원장 고정환 647-529-2281)

---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장 김재숙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호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 December SPECIAL SALE



**35<sup>99</sup>**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5.99**



**1<sup>19</sup>**

**Heinz**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19**



**1<sup>19</sup>**

**Allen's**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1<sup>99</sup>**

**2<sup>49</sup>**

**3<sup>99</sup>**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sup>59</sup>**

**2<sup>79</sup>**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Ferrero**  
Ferrero Rocher T3 3Packs Reg.\$15.25 **Spe.\$13.85**  
Raffaello T3 3Packs Reg.\$19.65 **Spe.\$18.45**  
Ferrero Collection T3 3Packs Reg.\$15.25 **Spe.\$13.85**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Regal**  
D.Bubble Mi Phone \$17.99 **\$15.79**  
Dubble Bubble Tub \$15.69 **\$13.99**  
Baby Bottle Pop \$22.59 **\$20.29**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Mondelez**  
Peek Freens 275g-300g All Kinds Reg.\$3.25 **Spe.\$2.89**  
Crispers 175g All Flavours Reg.\$2.19 **Spe.\$1.99**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Mondelez**  
Maynard Small Bag 17-185g  
All Flavours Reg.\$1.89 **Spe.\$1.69**



**Cadbury**  
Cadbury Singles Size 33-50g Excluding Flake  
Reg.\$23.85 **Spe.\$22.85**  
Flake 32g All Kinds Reg.\$29.59 **Spe.\$28.49**  
Cadbury King Size 66-90g All Kinds  
Reg.\$34.59 **Spe.\$32.59**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75  
**Spe.\$3.0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Campbell's**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Habit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1.89 **Spe.\$1.79**



**Mr. Noodles**

Cups 12/64g All Flavours Reg.\$10.65 **Spe.\$9.65**  
 Flats 24/85g All Flavours Reg.\$7.49 **Spe.\$6.99**  
 Bowls 12/110g All Flavours Reg.\$15.69 **Spe.\$13.69**



**Classico**

Pasta Sauce 410-650ml All Flavours  
 Reg.\$3.79 **Spe.\$2.19**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65 **Spe.\$2.35**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Nestle Purina**

Beneful Dog Food 1.36~1.8kg All Flavours  
 Reg.\$5.89 **Spe.\$5.35**  
 Beneful Wet Dog Food 283g All Flavours  
 Reg.\$2.25 **Spe.\$1.95**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8.9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5<sup>19</sup>**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M2**

12" Vortex Angle Broom Reg.\$4.05 **Spe.\$3.69**  
 Snap 2 Go Mop Handle Reg.\$7.39 **Spe.\$6.59**  
 Bagged Cotton Mop 16oz/450g Reg.\$3.25 **Spe.\$2.99**  
 24oz/650g Reg.\$4.39 **Spe.\$4.15**  
 32oz/850g Reg.\$5.79 **Spe.\$5.4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b>3.95</b>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b>2.95</b>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b>3.95</b>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b>3.95</b>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b>3.95</b>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b>3.95</b>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b>2.95</b>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b>3.95</b>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b>3.95</b>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b>3.95</b>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 2019 11.3~11.30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Take Home



Lay's XL  
2/\$7

Take Home



Smartfood XL  
2/\$7

Single Serve



Lay's  
Miss Vickie's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http://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